



경기동향(10월2주) - IMF 세계경제전망 상향

Weekly Short Comment - 긍정적 글로벌 경기흐름 전망

2017년의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IMF 에서도 새로운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긍정적 시각을 좀 더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는 7월 전망보다 0.1%p 상승한 3.6%의 세계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2018년 역시 7월 대비 0.1%p 상승한 3.7%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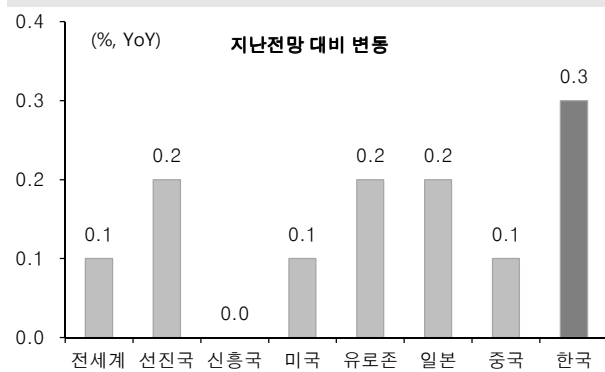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미국경제는 기존 전망치 대비 0.1%p 상향하였으며, 유로존의 성장률은 정치적 리스크의 완화와 더불어 수출회복 등 역내 수요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금년과 내년 각각 0.2%씩 상향조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국 역시 각각 0.1%p 씩 상향되어 금년 성장은 6.8%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망은 현재의 정책기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초의 전망 이상의 생산경기 확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상향이 이루어진 국가는 한국인데, 지난 4월 전망치인 금년 2.7%, 내년 2.8%의 성장전망에 비하여 각각 0.3%p 와 0.2%p 가 상향된 3.0%를 기록하였다. 결국 연초이후 빠르게 회복된 소비심리를 통한 내수 확대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모멘텀의 확대 기조와 이에 따른 수출 증가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지표 다시보기(10/9~10/13) - 미 연준 9월 의사록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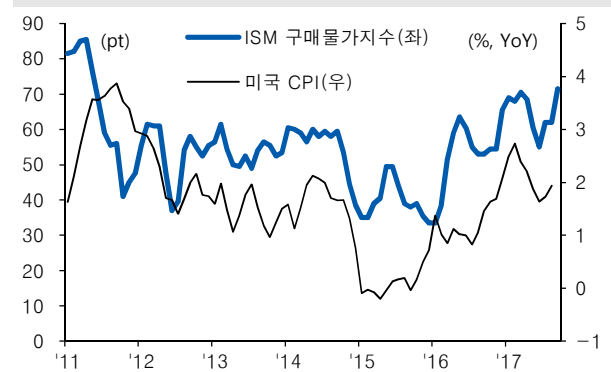
IMF 의 경제전망에도 나타나 있듯 미국경제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필립스커브에 대한 논쟁으로 인하여 저물가 지속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다수의 위원들이

IMF 의 세계경제전망 상황



주: 한국은 4월전망 대비 10월 전망과의 차이. 자료: IMF,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물가상승 기대감 확대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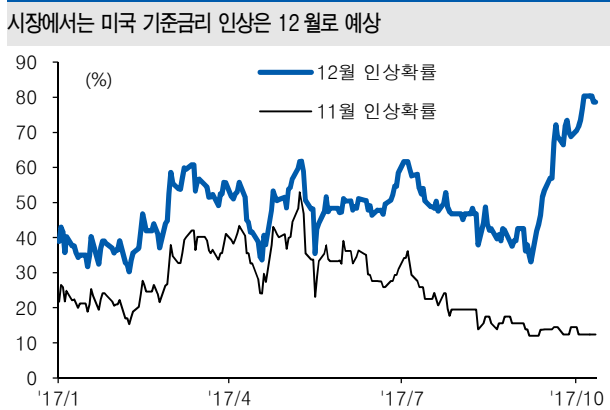


Weekly Mac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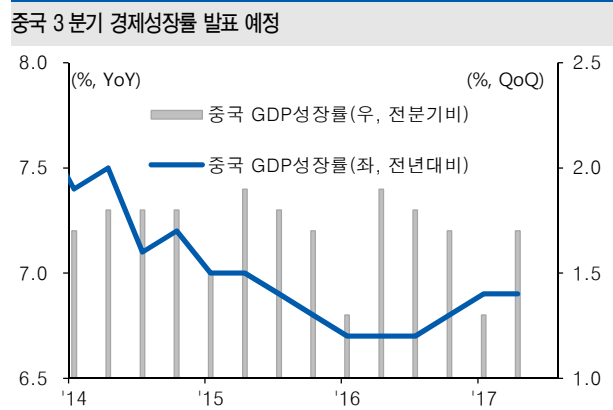
고용시장의 호조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물가 반등에 대한 자신을 보이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자 역시 현재 미국의 상황은 필립스커브의 정상화 과정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9월의 FOMC 회의에서는 최근 저물가 기조의 지속에 대하여 약간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금년 중 금리인상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12월 금리인상 확률 역시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이 확인된다.

경제지표 미리보기(10/16~10/20) – 중국부터 3분기 성장률 발표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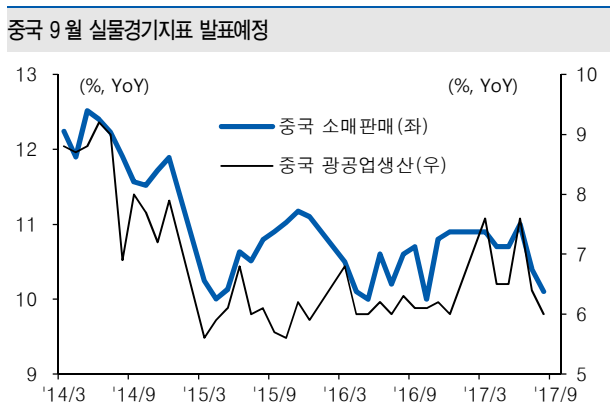
다음주에는 중국을 시작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될 예정이다.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9%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경기의 호조 역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와 유사한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IMF의 전망 역시 중국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것도 하나의 근거이다. 중국의 주요 실물지표인 9월 소매판매와 광공업생산도 발표될 예정인데, 지난 달에는 일시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회한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소매판매는 10% 이상, 광공업생산은 6% 중반의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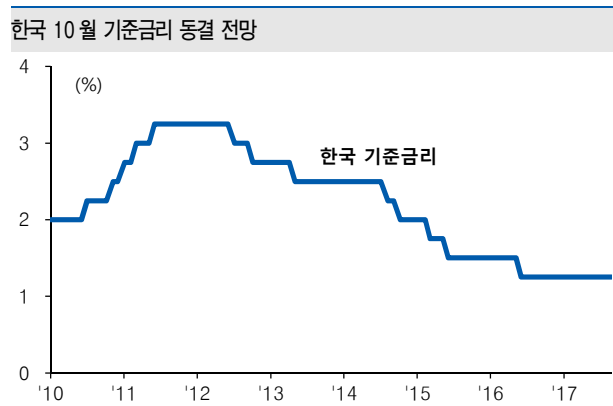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